

## <구로병원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 ▲ 병원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시설팀 통폐합 유감 표명 ▲ 건강검진 시 암지표 검사 추가 등 앞서가는 병원 되려면 안전에 대한 투자가 먼저



구로병원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17일 열렸다.

산안위는 노사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회의 시작 전 노동조합이 병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재옥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서가는 병원이 좋지만 그에 비해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노사가 논의하는 자리로 산안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의 입장을 잘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2·4분기 산안위에서 논의되었던 안전에 대한 이행 점검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본 안전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외에도 안전에는 없었으나 조합원들의 고충 및 안전과 관련한 사항(수술실 상주 직원 탈의실 사용, 중환자실 커튼 탈부착)에 대해 논의하며 병원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회의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한승규 병원장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병원이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 원칙으로는 맞으나 문제 해결의 순위 설정과 밸런스가 필요하겠다."고 말하며 병원의 고민을 전하기도 했다.

산안위는 약 1시간가량 진행했으며 산안위 요청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 안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	노동조합 질의	병원 답변
노동조합 요청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b>【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건】</b> ① 집체 교육 완료가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데 아직 이수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 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독려하도록 하겠다.
	<b>【산업재해예방의 수립에 관한 건】</b> ① 직무상 요양 신청에 대한 부결 사항은 없는가? ② 직무상 요양 신청자가 적는데 추가는 없는가? ③ 공상 처리된 직원은 없는가? ④ 주사침 자상이 지난 분기보다 약 30건이 증가했다. 예방대책이 무엇인가? <b>【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건】</b> ① 건강검진의 미수검자의 수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① 그렇다. ② 아직 진행중인 건 1건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 ③ 없다. ④ 감염관리실 문의 결과 신규 입사시부터 반복적인 교육이 예방 효과가 높다고 해 교육하고 있다. ① 회보를 통해 안내하고 전화 및 문자로 독려 하고 있어 많이 줄었다.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b>【비치 의약품 확대 지급에 관한 건】</b> <b>【간편복 병동 확대에 관한 건】</b> ① 진행상황이 어떠한가?	① 10종을 확대해서 비치하고 있으며 배포중이다. ① 간호부에 문의한 결과 3개 병원에서 구로병원만 시범 운영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이나 실시 시기를 추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3개 병원에서 추후 논의

	<p>② 간편복으로 교체하는 병원들이 확대되고 있다. 활동성과 감염성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원 운영위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좋겠다.</p> <p><b>【간편화 부서 확대에 관한 건】</b></p> <p>① 의기직 추가확대에 대한 진행상황은?</p> <p>② 수술실 일반업무직, 비정규직들에게도 지급 되고 있는가?</p>	<p>예정으로 알고 있다.</p> <p>① 단위병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다.</p> <p>② 다 지급되었다. 간호부에서 간호화로 할 것인지 수술실 내 전용 신발로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p>
근로자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p><b>【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건】</b></p> <p>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구로병원도 2명을 선임해야 한다.</p> <p><b>【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건】</b></p> <p>① 안전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안전관리자 외에 병원차원에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여 병원 안전에 더욱 기여했으면 좋겠다.</p> <p><b>【시설팀 통폐합과 관련한 유감 표명】</b></p> <p>시설팀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실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서원들의 동의와 의견이 빠진 채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어 시설팀의 문제가 계속 발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실의 경우 메인 시스템을 지하에 두고 사무실을 지상에 두는 등 효율성 개선과 전혀 동떨어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p> <p>관리자를 선임할 때 부팀장에게 먼저 선임 하도록 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자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부팀장이 선임 자격이 되지 않아 보조관리자로 등록한다면 담당 직원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는 지휘체계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p>	<p>① 전국병원 조사 결과 2명 전임을 하는 곳은 서울대병원밖에 없다. 법 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나 1명 전담자에 1명의 보조 관리자가 있어서 무리 없이 운영하면 될 것 같다.</p> <p>① 사내 명감은 권한이 많아 병원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논의과정에 붙여야 할 것 같다.</p> <p>업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나 효율성 면에서 개선을 하는 편이 좋다고 하여 진행했다.</p>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건	<p><b>【신규직원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건】</b></p> <p>① 신규직원 입사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는데 이 때 건강검진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타 병원이나 모든 기업들은 보통 신규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사업주 측에서 내는데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p> <p><b>【직원 건강검진 시 암 지표검사 추가에 관한 건】</b></p> <p>① 병원 노동자들은 야간노동 및 환자스트레스로 인해 암 발병률이 더욱 높다고 한다. 직원 건강검진 시 피검사를 하는데 이 때 암지표 검사를 추가하여 암에 대한 조기발견 등으로 직원 건강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p>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의료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p> <p>① 암 지표 검사만으로 암 진단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다.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또한 3개 병원에서 같이 진행해야 하는 문제일 것인데 추후 논의하겠다.</p>
추가 논의 사항	<p><b>【수술실 내 상주직원 탈의실 사용에 관한 건】</b></p> <p>수술실 상주 하는 직원 중 4명 정도가 탈의실이 없어 개인 물품을 매일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장을 나눠 쓰더라도 고정적으로 가능한 장이 있으면 좋겠다.</p> <p><b>【중환자실 커튼 탈부착에 관한 건】</b></p> <p>현재 중환자실 야간에 1명씩 돌아가면서 탈부착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직원안전에 위험 요인이다. 전문 업체에 맡겨 직원안전을 추구해야 한다.</p> <p><b>【직원 휴게실 설치에 관한 건】</b></p>	<p>① 수술실과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다.</p> <p>말씀하신 것 중요하다. 병원에서 일하다보니 한꺼번에 해결 해 줄 수가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p> <p>직원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동 2층에 공실 부분을 요양실 및 수면실로 확충하기로 했다.</p> <p>현재 설계도를 변경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 예정이다.</p>